

모든게 그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니 그 한 구멍에 보라!

21면에서 계속

가지고, 말을 가지고 법을 실천할 수는 없다. 즉 말하자면 공법을 실천할 수는 없다 이 소 리죠. 편히 앉아서 해요.

질문자4(남) 스님, 감사합니다. 저는 다름 이 아니고요, 뭐 말해주도 없고 이런데 지난 촛불제 지낼 적에 말입니다. 첫날은 잘 몰랐 는데 둘째 날하고 셋째 날하고 이 속에서 풍 클뿔뿔한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. 스님들께 너 무너무 감사하고 해서 인사 올릴 겸 그래서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

큰스님 그런데 그 눈물이 나는 것은 안의 참 자기와 이 부처님의 뜻과 동시에 통신이 되기 때문입니다. 통신이 되기 때문에, 그러니까 자비의 눈물이죠.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고 또 번뇌 망상, 운명 팔자가 무너지는 눈물이고, 그 세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.

질문자4(남)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딱 들더 라고요.

큰스님 하하하.

질문자4(남) 그리고 그다음에 말입니다. 지 나고 난 다음에 책을 다시 보니까 그 줄에 그 게 안 띄어요. 처음에 그게 딱 보이더니만 그 게 안 보이더라고, 그게요. 나타났다가 들어갔 다 그러는 모양이죠?

큰스님 그렇게 자주 해 나가세요. 자꾸자꾸 그렇게 될 때에는 통신이 되고 문이 열리는 때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있다 보면 문이, 문 아닌 문이 열릴 수가 있는 거죠.

질문자4(남) 감사합니다.

질문자5(남) 생활 속에 있었던 조그만 이야 기를 스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다름이 아 니고 문을 잠그려고 열쇠를 들리는데 열쇠가 부러지더라고요. 맨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좀 있다 보니까 기분이 좀 나쁜 거예요.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 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.

좋다 나쁘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런 것 같고요. 제가 스님께 묻고 싶은 것은 좋 다 나쁘다는 것이 업식에서 나오는 것인지, 근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.

큰스님 자기 마음이 깨질 땐 못했기 때문에 자기 몸뚱이 속의 의식들에서 나오는,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마음이죠.

그러니까 의식들을 전부 전체 다스리고 가 는 중심처는 뭐 좋다 나쁘다 할 것도 없고 움 죽거리지도 않고, 힘만 배출해 주는 심봉이니 까요. 그러니까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죠. 그러 니 모든 것을, 좋다 나쁘다 모든 게 그 한 구 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한 구멍에 보라 이 소립니다.

좋은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고 나쁜 것 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속에서 보라 라는 것은 그것을 다, 좋다 나쁘다를 소멸 시키고 그 자리에서 자기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는 게 법이에요. 그 가운데서.

질문자5(남) 예, 감사합니다.

질문자6(남) 감사합니다. 큰스님. 제가 질 문을 준비해 왔는데 그 질문이 큰스님께서 법 문하시는 중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. 그래도 다시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. 마음을 계속 관하고 가다 보니까 믿음이 크게 생기면서 어 떤 괴로움이나 즐거움 그리고 욕망, 그런 걸 다 하긴 하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 다.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긴 하되 하지 않 는다는 생각 말입니다. 그러니까 그 자리는 깨지려야 깨질 수가 없고 어떻게 주려야 줄

테 이 속에서는 그것이 전부 한가지라고 느 켜줍니다. 그러니까 세 가지 단계가 다 있지 만 한 가지라고 느껴 가지고 스님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.

큰스님 오, 그래요. 삼천대천세계도 일심으 로 돌아가니까요. 미래도 현실이요, 과거도 현실에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. 천당 지옥도 따로 없이. 그러니까 그 또한 그럴 테죠. 그러 니까 그 원리를 알고 그 뜻을 알고 행한다면 그대로 법이 아니겠어요?

질문자6(남) 감사합니다.

질문자7(여) 스님, 감사합니다. 평소에는 제가 선원에서 질문드릴 기회가 있으면 우후, 상생계나 혹은 우주인들의 생활 모습 또 문화 생활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하다는 생각을 해 왔었는데 오늘은 질문을 드리려는 생각 없이

그래서 어머니께서 놀라 가지고 딱 쳐다보 시니까 그 옆에, 밑에는 남색 치마를 입고 위 에는 진달래색 저고리를 입은 여자 분이데 얼 굴을 보니까 얼굴은 없는 사람이 서 있었다고 그러셨습니다.

그래서 어머니께서 “내가 그거 고쳐 줄게 요.” 그러면서 가위를 가지고 아버지 두루마 기의 곱팡이 있는 부분을 다 자르니까 그 옆 에 섰던 얼굴이 없는 그 여자 분이 화장실 쪽 으로 막 도망을 가더라면서, 그게 뭐냐고 그 러시는 겁니다, 저한테.

그래서 “저도 잘 모르지만 어머니, 어머니 께서 곱팡에서 나쁜 것을 가위로 탁 제거해 주셨으니까 잘한 것 같습니다.”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‘주인공, 웃이 더럽다는 건 무슨 뜻이지? 주인공, 주인공이 다 알아서 해 주리 라고 믿는다. 주인공, 부탁한다.’ 고 이렇게 생

었습니다.

어머니는 천주교 신자시기 때문에 이 공부 에 대해서 마음이 깊이 나누어 본 경우가 별 로 없었는데 제가 “어머니, 다녀오겠습니다.” 하니가 “잘 다녀오너라.” 하는 그 까만 두 눈 동자가 가슴에 꼭 메이면서 가슴이 그냥 뭉클 한 겁니다.

그래서 아, 어떤 뜻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아직 어려서 정신세계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스승님 계시게 여쭙고...

큰스님 그러니까요, 아버지는 환생이... 천 도가 됐다고 봐야죠. 왜냐하면 순간에 말입니 다. 그 곱팡이 나고 더럽고, 왜 이렇게 추저분 하고 더러우나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위로다 곱팡이 난 거를 다 잘라 줬다고 했죠?

그러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곱팡이 난 게 없 이 환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이 환생이라 는 것도 차원에 따라서 환생이 되어 되는 거 니까. 얼굴 없는 모습이나 어떠한 얼굴로 나 오든지, 여자로 나오든지 뭐, 그 여자로... 과 거 태어나시기 이전에 여자였던 모양이죠. 아 버지로 태어나시기 이전에 여자의 영혼이 바 로 태어난 남자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얼굴 이 바뀐, 바로 얼굴 없는 여자죠. 그러니까 전 생의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다 잘라 버려 준 거죠. 그러니까 자기 그 영혼의 근본만이 자 기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거니까요. 그러니까 소생은 됐습니다. 허허허, 좋으시겠습니다. 어머니가 교회 나가십니까? 성당에, 천주 교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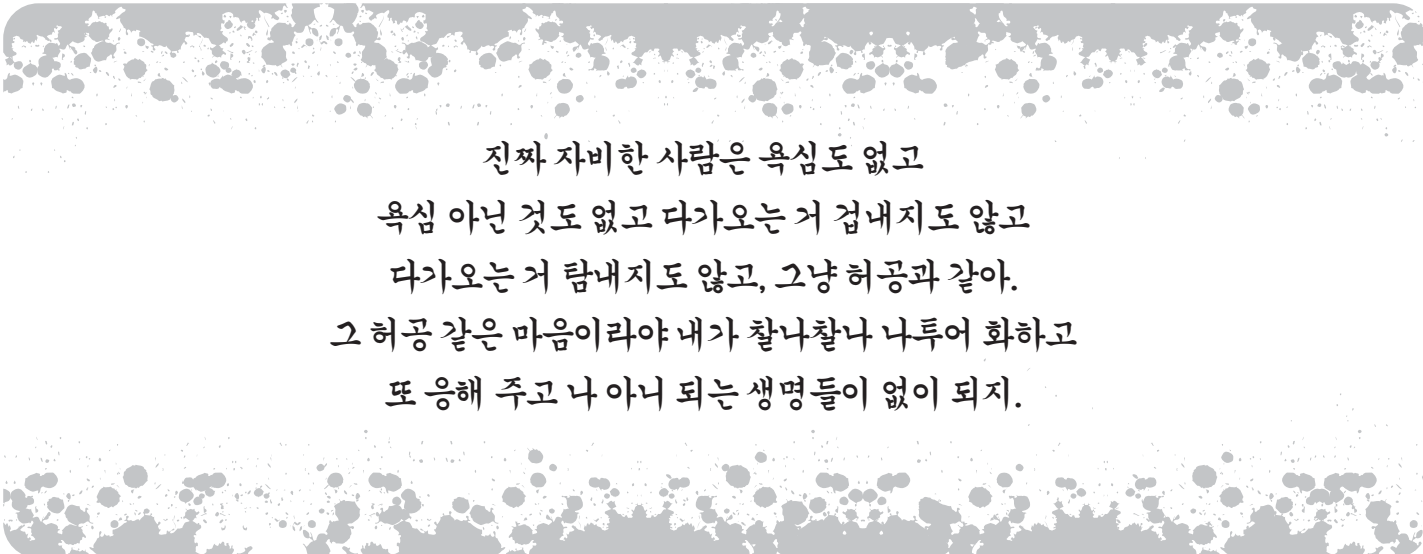
질문자7(여) 어머니께서 선원 이야길 들으 시면서 불교에 마음이 있어도 한평생을 성당 을 다녔기 때문에 주위 눈을 봐서...

큰스님 아니요. 그것은 마음이 제일입니다. 무슨 기독교를 나가든지 가톨릭교를 나가든 지 불교를 나가든지 그 마음 모이는 자리는 한자리밖에 없어요, 마음이라는 건. 그러니까 어머니도 좋으시겠습니다. 하하하.

하하하 오늘 이렇게 진행되고 잠시 잠깐이 라도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도반 여 러분! 우리가 몇 생을 지나 내려오면서 인연 이 됐던 인연으로 우리가 또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. 이거는 누가 가라고 발길로 차도 안 가지는 이런 인연이 과거로부터 있었기 때 문입니다.

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요다음 세세생생 까지 우리가 이 공기주머니를 벗어나서, 이 수레바퀴 속에서 같이 벗어나서, 물론 죽고 사는 그 생사윤회에서도 같이 벗어나서 자유 권을 얻고 자유자재합니다.

※ 위 법문은 97년 2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. 한마음선 원 홈페이지(www.hanmaum.org)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

진짜 자비한 사람은 욕심도 없고
욕심 아닌 것도 없고 다가오는 거 겁내지도 않고
다가오는 거 탐내지도 않고, 그냥 허공과 같아.
그 허공 같은 마음이라야 내가 찰나찰나 나투어 화하고
또 응해 주고 나 아니 되는 생명들이 없이 되지.

수 없는 그 자리임을 느꼈습니다.

그리고 옛날에는 괴로운 마음을 많이 가지 고 있었는데 그 괴로움까지도 다 놓고 가니까 환희심이 들었습니다. 제가 만약에 이게 지금 잘못된 공부라면 처음부터 다시 그냥 시작하 겠습니다.

큰스님 아니요, 아주 잘해 나가요. 왜냐하 면 지금 여기 걸어들 때 발자취를 자동적으로 버리면서 지금... 올라오긴 올라왔죠. 그 러니까 걸어오는 사이 없이 걸어왔다. 이 소 리나 똑같은 얘기예요. 그러니까 하는 사이 없이 한다.

생각나는 사이 없이 생각이 났다. 그러니 그거를 다 놓고 그냥 갈 줄 알게 된 것도 정말 감사해요. 놓고 그렇게 갈 수 있다면, 진짜로 믿고 놓을 줄 수 있다면 됩니다.

질문자6(남) 감사합니다.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. 큰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공부가 있다고 하시는

그냥 안양에 공부하러 간다는 생각만 하고 있 었습니다. 그런데 저의 친정 어머니께서 평소 에 잘 안 오시는데 오셔서 어젯밤에 저의 집 에서 주무셨습니다.

제가 다음 주에 이사를 앞두고 이삿짐도 싸 야 되는데 ‘안양에 간다 그러면 뭐라 그러 실까.’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‘주인공, 그냥 나는 간다.’ 그리고 새벽 한두 시쯤 책상에 앉 아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일어나셨습니다.

그래서 너 어디 갈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‘예, 어머니. 안양에 공부하러 갑니 다.’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이상한, 꿈도 아니 고 생시도 아니고 새벽에 돌아가신 네 아버지 가 너무 생시같이 나타나서 쟁 울리는 목소리 로 “내 옷이 왜 이리러냐. 내 옷이 참 더럽다.” 그러는데, 하얀 두루마기를 입으셨는데 어머 니께서 보시니까 팔 부분하고 겨드랑 밑에는 곱팡이가 막 슬어 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했었다고 그러합니다.

각을 함과 동시에 마산지원 스님께 여쭙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

그러면서 이승과 저승이 둘이 아니라는 것 을 배웠으니까 아마 자식 된 도리로서 제가 해 야 되는 어떤 도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오늘 버스를 타고 오다가 내릴 때 쯤 됐는데 마산지원장 스님께서 질문 있으신 분이 생각을 한번 하라고 그러셨습니다.

그래서 저는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는 생각 안 하고 ‘주인공, 질문이 있으면 주인공이 하 라.’ 그렇게 관하고 눈을 탁 감고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머니하고 나 누었던 그 얘기가 강력하게 머리를 진동을 하 면서 막 떠오르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또 그 자리에 놓으면서 주인공이 하는 거라고, 내가 대중들 앞에 좀 나서기가 그렇다고, 주인공 심부름이라든 해야 되고 주인공이 다 하는 거 라고 관하면서 그 내면에서 잘 갔다 오라던, 어머니의 두 눈동자가 탁 클로즈업 되는 것이

양지국악사

사찰전통 대법고 · 법당천도법고 · 태징 · 목어



서울매장 :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-1번지
02)3673-3442 / 764-2159, 010-5264-3906
www.yangjikukak.com

하남공장 : 경기도 하남시 하산공단 445번지
031)793-3906, 010-5264-3906 www.yjkukak.com

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
악이 입에 이르기 전에
병이 낫는다

환인동 요기마을



민속죽염 30년 전통

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
“맑은 물, 맑은 공기, 맑은 음식, 질 좋은 소금”인데 이 중 “질 좋은 소금” 자색죽염 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특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 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 장 우수한 죽염입니다.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 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1.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.
2.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.
3.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.
4.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.

※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.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가 루 자 죽 염 125g | 40,000원 |
| 가 루 자 죽 염 230g | 73,000원 |
|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| 43,000원 |
|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| 78,500원 |
|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| 7,500원 |
| (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.) | |
| 2번 구운 | |
| 보급형 민속죽염 500g | 18,000원 |
| 250g | 9,000원 |
| (음식조리용 · 양치용 · 피부미용) | |

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.
※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(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) 증정. 회원우대

주문 및 상담 : 010-2823-0483

입금 : 농협 150012-56-086122 예금주 : 김용희(민속죽염)
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.mszy.co.kr

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/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/ 특허청정장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
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
전용운반차의 선구자! **큰우테크**주

사찰 사용 모습

- 경사지 공방 재수 운반
- 고소 연동 설치
- 전차보레이크 장착으로 내리막도 안전
- 오르막 오를 시 수평유지

※ 종단 / 교구 / 지역 / 신도회별 단체상담

문의전화 : 010-7518-7854, (053)801-7897, 7895
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82-6(검단동 887-160번지) www.kw-tec.co.kr